

국립중앙도서관 외국자료 개발 방향성 연구*

A Study on the Direction for Foreign Materials Development of National Library of Korea

배 경 재 (Kyung-Jae Bae)**

김 신 영 (Sin-Young Kim)***

< 목 차 >

I. 서론	III. 국립중앙도서관 외국자료 개발 방향성
II. 주요 국가도서관 외국자료 수집 현황	IV. 결론 및 제언

요약: 국가도서관은 한 국가의 지식문화유산인 국가장서를 집중적으로 개발·보존하고 제공해야 할 책무가 있다. 특히 국립중앙도서관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4대 목표 가운데 '국가지식자원 접근·보존 기반 고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외연적 범위를 국내자료뿐 아니라 외국자료로도 확대하여 국가지식자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국내에서 생산되는 최신자료와 소급자료를 최대한 수집·제공·보존하는 기능은 물론이며 외국에서 생산·유통·보존되고 있는 고품질 학술자료 및 한국과 관련된 자료를 가능한 한 많이 수집하여 국가지식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본 연구는 선진국 국가도서관의 외국자료 수집 및 서비스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외국자료 수집수준을 비교·평가한 다음 고품질 학술자료 및 한국 관련 외국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주제어: 국가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 장서관리, 장서개발정책, 외국자료

ABSTRACT: National libraries have a responsibility to intensively develop, preserve, and provide national collections, which are the knowledge and cultural heritage of a country. In particular, in order to achieve 'advancing the base for access and preservation of national knowledge resources' among the four goals to fulfill the mission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national knowledge resources by expanding the external scope to not only domestic materials but also foreign materials. In other words, The National Knowledge Information Center collects the latest and retroactive data produced in Korea, as well as high-quality academic materials produced, distributed, and preserved in foreign countries as well as materials related to Korea. This study drew implications by investigating and analyzing the status of foreign collection and services of national libraries in developed countries. Based on th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evaluate the current level of collection of foreign collections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then present a strategy to secure high-quality academic and foreign materials related to Korea.

KEYWORDS: National Library, National Library of Korea, Collection Development, Collection Management,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Foreign Materials

* 본 논문은 국립중앙도서관 외국자료 장서개발정책 연구(2020)를 바탕으로 수정·재구성하였음.

**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kjbae@dongduk.ac.kr / ISNI 0000 0004 6426 0952) (제1저자)

*** 경일대학교 아동문헌정보전공 부교수(sinyoung@kiu.kr / ISNI 0000 0004 7390 3462) (교신저자)

• 논문접수: 2021년 5월 21일 • 최초심사: 2021년 5월 27일 • 게재확정: 2021년 6월 11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2(2), 167-188, 2021. <http://dx.doi.org/10.16981/kliss.52.2.202106.167>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 제18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국내·외 지식정보자료를 수집·정리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후대의 이용을 위하여 보존하며 국내 도서관계의 발전을 지원·선도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최신자료와 소급자료를 최대한 수집·제공·보존하는 기능은 물론이며 외국에서 생산·유통·보존되고 있는 고품질 학술자료 및 한국과 관련된 자료를 가능한 한 많이 수집·제공하여 국가지식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현행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지침(2018)」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하는 외국자료는 그 성격의 일반성과 특수성을 불문하고 외국에서 발행·제작된 자료, 즉 출판지에 외국이라는 속주주의가 적용되는 자료로 정의하고, 일반자료와 특수범주자료로 구분하고 있다. 외국에서 발간된 한국 관련 자료나 한국인이 저술한 자료를 최우선 구입하며, 주요 국가도서관, 국제 학술단체,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와 교환 및 기탁을 통하여 외국 정부간행물, 학술자료, 각종 통계자료, 국제기구간행물 등을 수집하고 있다.

이처럼 국립중앙도서관은 해외 소재 한국 관련 근현대 기록자료 및 학술연구자료의 수집을 통한 연구정보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지만, 선진국 국가도서관과 비교하면 그 격차가 여전히 크다. 2020년 6월 기준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외국자료는 총장서의 12.2%(1,524,690책/점) 수준이다. 이외는 대조적으로 미국의회도서관은 해외사무소를 설치·운영하여 외국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고 그 규모가 총장서의 약 24%에 이르고 있다. 또한 일본국립국회도서관과 중국국가도서관도 각각 25%와 40%에 달한다. 특히 영국국립도서관은 자국 내에서 출판된 모든 자료를 완전하게 수집함은 물론이며 국내·외 정보수요를 위한 ILL/DDS를 장서개발정책의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기 때문에 외국자료의 수집·제공에도 완전성을 기하고 있다. 국가도서관의 지식정보수집력은 연구경쟁력과 기술경쟁력 상승에 기여하며 이는 곧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지식정보센터로서 서비스 역량을 극대화하여 그 위상을 확립하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외국자료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선진국 국가도서관의 외국자료 수집 및 서비스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외국장서 수집수준을 비교·평가한 다음 고품질 학술자료 및 한국 관련 외국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대상과 방법

본 연구의 대상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은 주요 선진국(미국, 영국, 호주, 일본, 중국) 국가도서관으로 한정한다.

둘째, 연구 및 분석방법은 비교방법론을 적용하여 주요 국가도서관의 외국자료 개발정책, 장서 현황, 특성화자료 및 중점수집 분야를 분석한다. 추가적으로 한국학 자료의 수집현황 분석을 통하여 향후 벤치마킹의 사례로 활용한다.

셋째, 분석대상 자료는 기관별 공식 발간된 자료(연차보고서, 통계자료 등)를 우선하되 홈페이지, 웹자료, 학술논문, 면담 등을 통한 자료로 보완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외국자료 개발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II. 주요 국가도서관 외국자료 수집 현황

1. 미국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LC의 장서개발정책인 「장서정책선언(Collections Policy Statements)¹⁾」은 1993년 수립되었으며, 2008년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도 부분적으로 수정·보완을 하고 있다. 현재는 CPS의 용도, 목적, 기본원칙 등을 제시하고 있는 서론과 주제 및 매체별 지침(66개)과 부록지침(9개)을 포함한 총 7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가운데 외국자료는 ‘지역연구(Area Studies)’에서 호주, 영국, 캐나다, 중국, 유럽, 일본, 한국을 비롯한 14개 국가·지역으로 구분하여 세부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LC의 CPS에 근거한 외국자료 수집은 주로 국제교환과 구입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국제교환은 국제교환서비스 사무국과 국가출판물국, 미국무성 조약국의 협력을 통하여, 전 세계 5천여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자료 구입의 경우, 전 세계 벤더를 대상으로 구매협약을 맺고 신간 출판물, 희귀서나 소급자료 등을 입수하고 있다. 특히, 1962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해외사무소(브라질,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케냐, 파키스탄)는 일반적인 수집 방법으로 입수가 어려운 출판자료를 수집하며, 현지에서 고용한 직원이 직접 편목과 매체변환²⁾ 등의 업무를 거쳐 본국으로 이송한다. LC 해외사무소에서 최근 3년 동안 수집한 외국자료는 <표 1>에 정리한 바와 같다. 구체적인 수집범위는 정부간행물, 비상업출판물, 상업출판물, 신문, 지도, DVD, CD, 잡지,

1) Available: <https://www.loc.gov/acq/devpol/cps.html>

2) 특히, 뉴델리와 자카르타 사무실에서는 보존용 마이크로필름 작업을 대규모 단위로 수행하고 있음.

학술저널을 포함한 학술적 가치가 있는 모든 주제³⁾와 다양한 매체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Library of Congress, 2018~2020).

〈표 1〉 LC 해외사무소 외국자료 수집 현황(2017~2019)

구분		2017	2018	2019
단행본(권)	LC 소장용	47,721	45,979	43,008
	CAP 협력기관 제공용	159,827	112,394	124,371
연속간행물(권) (신문 포함)	LC 소장용	138,226	123,658	138,082
	CAP 협력기관 제공용	165,811	135,208	142,568
서지레코드 생성 및 갱신(건)		49,266	49,266	60,311
매체변환(페이지)		2,264,386	2,146,446	2,007,999
영인/마이크로필름(점)		7,026	6,254	5,978

또한 미국 내의 연구도서관을 비롯한 100여개 유관기관과 협동수서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외국자료 구입 및 서지레코드의 공유, 비용절감, 외국자료의 수요를 파악하는 등의 이점이 있다. 참여 기관은 자료구입비, 배송비, 행정비용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단위로 기탁하며, LC 해외사무소가 일괄 수집한 자료는 현지 해외사무소의 전문직원이 서지레코드 작성 혹은 매체변환 등의 업무를 과정을 거친 뒤에 개별 회원기관 및 LC 본관으로 보내진다.

이처럼 아시아, 아프리카 및 중동, 유럽, 라틴아메리카 등지에서 수집한 외국자료는 LC의 지역·국가별 전문자료실에서 자료의 광범위한 브리핑을 통한 주제게이트웨이 기능을 포함한 참고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도서 뿐만 아니라 지도자료, 영화, 방송 및 녹음자료, 음악, 사진자료, 귀중본 등 450개 이상의 언어로 작성된 방대한 자료는 경우에 따라 매체변환 과정을 거쳐 디지털형태로 LC홈페이지⁴⁾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학 자료실 웹페이지(LC Collection Overview: Korean Studies)⁵⁾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집 장서의 범위, 규모, 연구지원 강점, 컬렉션의 특징, 전자정보원, 장서구성의 약점/제외 등을 발췌·정리하면 〈표 2〉와 같다.

3) 국립농업도서관(National Agricultural Library)과 국립의학도서관(National Library of Medicine)이 담당하는 기술농업과 임상의학을 제외한 전 세계의 모든 학문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4) Available: <https://www.loc.gov/rr/coll-international.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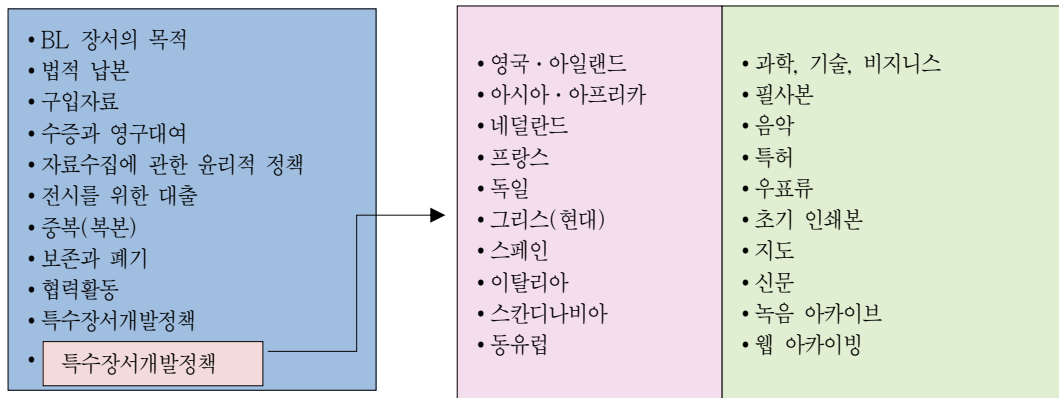
5) 1993년 버전의 LC CPS는 『Master List of Collections Overviews』로 LC홈페이지에서 장서의 범위, 규모, 연구지원 강점, 컬렉션의 특징, 전자정보원, 장서구성의 약점/제외 등의 순서로 해당 주제분야에 대한 장서개요 형태로 제시하고 있으며 한국학 자료는 〈<https://www.loc.gov/acq/devpol/colloversviews/korean.pdf>〉의 내용을 중심으로 발췌·정리하였음.

<표 2> LC Collection Overview: Korean Studies 발체 · 정리 내용

구분	주요 특징
I. 범위 (Scop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0년대 초반 LC의 동양자료부 소속 일본자료팀에서 한국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으며, 당시 대부분의 한국 관련 자료는 일본어로 된 자료를 수집하였음 • 1964년 조직개편으로 중국·한국자료부로 이관되었으며, 1966년 9월 한미협정체결로 한국 정부간행물을 다량 입수함 • 1989년 한국국제문화학회의 지원과 기부금으로 1990년에 한국자료팀이 구성됨 • 캐나다인 선교사 James S. Gale을 통하여 1920년대 한국인과 문화에 대한 다량의 도서(한자본)를 입수함
II. 규모 (Siz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교적 늦게 한국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지만 동아시아 지역자료 가운데 상당한 수집규모를 갖추고 있음 • 다수의 19세기 자료를 포함하여 2007년 기준 약 264,000권의 단행본과 6,800종의 연속간행물을 소장하고 있음 •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1920년대 신문 2,500필을 소장하고 있음 • 한국의 고전, 역사, 문학, 예술,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 분야 주제자료를 폭넓게 소장하고 있음 • 한국이민자 증가와 한국경제 및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한국학자료의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연평균 약 5,000권의 단행본과 4,200종의 연속간행물을 수집하고 있음
III. 연구지원 강점 (General Research Strength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로 기술된 한국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음 • 아시아지역자료실(Asian Division Reading Room) 웹페이지를 통하여 한국자료 서지 4,800건의 검색이 가능하며, 한국지도와 지리서, 회귀 판본, 사진 등을 다수 소장하고 있음 • 한국자료는 인문학(40%), 사회과학(40%), 그 외 총류, 과학 및 기술, 서지류(20%)의 주제별 자료구성비를 나타냄
IV. 특징 (Areas of Distin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귀서: Han'guk Ch'odae Kidokkyo Munso: The Library's Christian Korean Collection (한국초기 기독교 컬렉션), Minjuhwa Undong Collection(민주화운동 컬렉션) 등 소장 • 북한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인민주의공화국(DPRK) 관련 자료 약 10,000점 소장 - 1940년대~1960년대 북한 발행 연속간행물 소장 - 1950년대 이전 발간(전쟁으로 소실된 회귀본 다수) 북한자료
V. 전자정보원 (Electronic Resour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지도자료실 소장 한국 관련 지도와 지도첩, 아시아자료실 소장 한국 귀중서 등 다수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온라인으로 무상 제공하고 있음 • Soviet Korean Bibliography: 우즈베키스탄에서 입수한 80인의 Soviet-Koreans(고려인) 지도자에 대한 전기류 등을 디지털화하였는데, 북한의 성립에 많은 영향을 준 인물이 수록되어 있음 • 남북한의 다수의 학술지와 신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으며, 북한 관련 신문과 저널 데이터베이스에 Pyongyang Times(영문판)도 포함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rean Serials Database: 북한 연속간행물 200종 포함 6,800종 -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DB(학술지 약 1,200종 원문제공) - Chosun Daily Newspaper Archive - DBpia(학술지 약 700종 원문제공)
VI. 약점/제외 (Weaknesses/ Exclus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큐멘터리 필름, 음악, 포스터 등 비도서자료는 빈약하지만, 영화, 방송, 녹음자료 등의 수집을 확대하고자 협력 중에 있음 • 북한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한 노력중이나, 북한을 통한 직접 수집은 불가능한 상황임 • 한국 이외 즉, 미국, 일본, 러시아 등의 한국 커뮤니티에서 발행된 자료의 입수도 고려하고 있음

2. 영국국립도서관(The British Library)

BL의 장서개발정책⁶⁾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 정책과 이에 근거한 세부지침으로 국가·지역별 정책과 자료유형·주제별 정책으로 대별한 20개의 특수정책(special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으로 구성되어 있다. BL의 장서개발정책은 영국에서 출판된 모든 자료를 완전하게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현행자료와 소급자료 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영국 웹사이트를 포함한 전자자료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또한 다른 국가도서관과 달리 국내·외 정보수요를 위한 ILL/DDS를 장서개발정책의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기 때문에 외국자료 수집에 있어 방대하고 완전한 장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BL은 납본, 구입, 수증, 교환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지만, 법적 납본과 구입이 수집자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구입을 통한 수집은 ① 신간 외국어로 된 자료, 외국에서 출판된 연구수준의 영어자료, ② 기존장서의 강점을 유지·보완하기 위한 주제·시대·자료유형 등 모든 영역에 걸친 역사적 기록, ③ ILL/DDS를 위한 납본자료는 중복 입수하는 지침을 세우고 있다. BL은 세계 각국에서 출판된 인문과학, 사회과학, 과학·기술·의학 분야 중 영어로 된 자료는 연구수준의 수집을 목표로 하며, 그 외 외국어로 된 인쇄자료는 고등교육기관과 연구도서관그룹의 자문을 받아 선택적으로 구입하고 있다.⁷⁾



<그림 1> BL 장서개발정책의 구성체계

이 가운데 특수장서개발정책을 살펴보면 국가·지역별, 자료유형·주제별 기준을 수립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유럽에 치중하며 자료 유형별로는 필사본과 초기 인쇄본을 강조하며 자료유형 및

6) Available: <https://www.bl.uk/catalogues-and-collections>

7) 구입을 통한 수집은 신간 외국어 자료 및 외국에서 출판된 연구수준의 영어자료, 기존장서의 강점을 유지·보완하기 위한 주제·시대·자료유형 등 모든 영역에 걸친 역사적 기록, ILL/DDS를 지원하기 위한 자료는 중복 입수하는 지침을 세우고 있음.

주제에 따라 망라적 수집 혹은 선택적 수집을 명시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도서관과 달리 컨스펙터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외국자료는 9개 지역(아시아·아프리카,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현대), 스페인, 이탈리아, 스칸디나비아, 동유럽)으로 대별하여 주제·형태별로 세부지침을 기술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동아시아 및 아메리카·오세아니아 지역 자료의 수집 현황은 <표 3>에 정리한 바와 같다.⁸⁾

<표 3> BL의 외국자료(동아시아 및 아메리카·오세아니아 지역) 수집 현황

구분	주요 특징
동아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일본, 한국, 만주, 몽골의 필사본, 인쇄본, 정기간행물, 녹음자료, 지도, 신문, 아카이브 등 자료를 수집 • Korean Colle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행본 약 15,000권, 필사본 50권, 연속간행물 500종, 정부간행물 및 신문 -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15세기~19세기 목판본 125권 - 북한자료: 단행본, 노동신문을 비롯한 신문 및 연속간행물 소장 - 1910년 이후 발행된 도서 및 연속간행물을 BL OPAC에서 검색 가능 - 1900년 이전 발행 자료 다수 소장 - 필사본 등은 'Archives and Manuscripts'에서 검색 및 이용가능 • Chinese Colle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행본 약 100,000권, 연속간행물 2,500종 이상 소장함 -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등을 통하여 수집한 1820~1910년대 간행된 Peking Gazette (Jingbao)를 비롯한 중국신문과 연속간행물, 19세기 후반 지방지 등을 소장함 • Japanese Colle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세기부터 현대까지 도서, 연속간행물, 신문, 전자자료 소장함 - 단행본 80,000권, 연속간행물 6,000종, 정부간행물 및 20종의 일본신문 등 - 에도시대 도서 및 필사본 - 동인도회사와 일본의 관계(1600-1623) 관련 문서류
아메리카·오세아니아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A collec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식민지 시대 자료부터 현대 자료까지 폭넓게 수집하여 미국 관련 연구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 단행본, 잡지, 악보, 지도, 저널 및 팸플렛, 필사본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국 관련 장서를 수집함 - BL에 등록된 이용자는 1800년 이전 인쇄자료, 신문컬렉션, 미의회발간자료를 포함한 Archive of Americana 등 디지털 자원을 이용할 수 있음 • Canadian collec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권 캐나다 자료와, 불어권 캐나다 자료를 동시에 방대하게 수집함 - 캐나다 역사와 관련된 단행본, 잡지, 악보, 지도, 저널 및 팸플렛, 필사본, 지도, 사진, 우표, 녹음자료, 원주민 관련 자료 등을 포괄적으로 수집함 - 1895~1923까지 캐나다 식민지 개척시대 사진자료와 디지털로 변환된 아카이브 자료가 탁월한 평가를 받음 • Latin American collec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세기부터 현대까지 방대한 자료를 입수하여 영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라틴아메리카컬렉션(멕시코, 중남미 전체)을 보유함 - 유럽의 정복과 식민주의, 아메리카의 가톨릭교회, 노예제와 폐지, 독립운동, 그리고 현대 경제, 정치와 사회 등 방대한 주제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지원서비스가 가능함 • Australia and New Zealand collec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영박물관으로부터 수증한 영국식민지 시절 호주 관련 자료를 다수 소장함 - 호주, 뉴질랜드 식민지 정착시대, 과학적 탐험, 남극탐험 자료 - 호주, 뉴질랜드 정부간행물, 통계, 법률 자료도 다수 소장함

8) Available: [https://www.bl.uk/collection-guides?subject=East Asia](https://www.bl.uk/collection-guides?subject=East%20Asia)

3. 호주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2016년 개정된 NLA의 장서개발정책⁹⁾은 서문, 일반원칙, 수집방법, 수집대상, 선별수집(외국 자료)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원칙에서 자료수집의 목적, 수집범위, 도덕적 수집, 집서수준(포괄적수집, 대표자료 수집, 선택적 수집), 호주자료와 외국자료의 일반적 수집지침, 우선 고려사항, 자료유형, 관리, 협동수서, 원주민자료 수집원칙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선별수집(외국자료) 지침에서 아시아·태평양 및 기타 지역으로 세분하여 자료별 정의와 범주, 현황, 수집의지, 우선고려사항, 협동수서 등의 세목을 선택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NLA 장서개발정책(외국자료: 아시아, 기타 주변국)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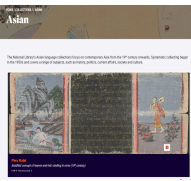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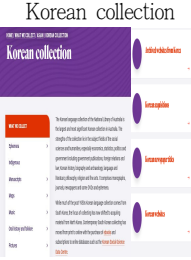
구분	주요 내용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LA는 외국자료를 선별 수집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이해를 높이고, 세계에서 호주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 호주 및 호주인과 관련된 장서를 포괄적으로 구축하고, 호주학 연구를 위한 연구자의 요구에 서비스하기 위한 국가도서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자료, 해외에서 출판된 호주에 관한 자료, 해외에서 호주인이 출판한 자료, 영어 외의 언어로 된 번역물로서 호주인이 저자인 저작물 등을 중심으로 수집함 • 인도네시아, 중국, 동티모르와 태평양 지역 자료의 수집에 치중하며, 호주에 영향을 미친 세계적 사건과 이슈를 잘 알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 사회과학, 인문학, 예술학 분야의 참고정보원과 도서를 집중 수집하며, 호주의 역사, 사회, 발전에 영향을 준 관련 정보를 수집함 • 참고자료는 가능하면 디지털 형태로 수집하며, 인문, 예술, 사회과학분야의 학제적인 연구 지원을 목적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LA는 주요 출판국가, 특히 북미와 영국 출간 자료를 폭넓게 수집함 • 영어와 불어로 된 자료를 우선 수집하며, 다른 국가 자료 중 중요하거나 독창적인 것은 해당 국가 언어를 수집함 • 아시아 국가 중 중국,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출간 자료를 집중 수집함 • 호주 원주민 자료부터 유럽 식민지 관련 자료까지 호주 역사, 사회, 발전에 영향을 준 자료를 주로 수집함
아시아·태평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중국, 태평양 지역 국가의 단행본, 지도, 연속간행물, 신문 등 자료 수집하며, 디지털 형태의 자료를 우선 수집함 • 멀티미디어, 그림, 단명자료, 웹사이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NAL의 인도네시아컬렉션은 세계적 수준의 연구지원 도서관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음. 특히, 1999년 이후 민주화 및 선거 관련 단명자료, 포스터, 팸플릿 등을 집중 수집함 • 인도네시아 현대 문학, 특히 소설을 집중 수집함 • 소수민족 및 소수언어, 원주민 예술과 문화 관련 자료를 수집하며, 이 자료는 인터넷 아카이브에 지속적으로 추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NAL의 중국컬렉션은 역사, 문화 및 최신 이슈 정보원을 풍부하게 수집하고 있음 • 중국자료는 인문학보다 역사 및 사회과학분야 중점 수집. 1911년 이후의 중국 문화와 예술 분야 대표 저작 수집함 • 현대 중국의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초기역사에 관한 중요한 저작물 수집함 • 중국의 문화와 예술에 관한 저작물 수집, 중국과 현대 중국의 발전, 세계에서의 위치 등을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으로 폭넓게 이해하기 위한 자료 중점 수집함 • 중국어와 영어로 기술된 자료 중점 수집함


9) Available: https://www.nla.gov.au/sites/default/files/collection_development_policy_revised_2_july.pdf

구분	주요 내용
태평양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바누아투, 피지, 동티모르, 뉴칼레도니아 등 멜라네시아 국가자료를 중점 수집함 • 뉴질랜드 국립도서관이 이미 하와이컬렉션은 잘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하와이 자료는 수집하지 않음 • 지역 언어와 문학작품 및 정치, 국제관계, 경제, 사회·문화 관련 이슈 관련 자료를 수집함 • 해당 지역 토착어로 된 자료도 선별적으로 수집하지만, 영어와 불어로 기술된 자료 우선 수집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 내의 기관 및 해외의 태평양 지역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기관과 협력함 • 해외기관으로부터 수집한 4만점 이상의 필사본과 마이크로필름을 소장하고 있음 • 영국과의 협력 프로젝트인 『Australian Joint Copying Project(1948-1997)』를 통하여 사본을 확보하였으며, Pacific Manuscripts Bureau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태평양 지역 자료(필사본, 문서, 회귀본)의 사본을 수집함
그 외 세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 역사, 정부, 국제관계, 환경, 에너지, 자원, 경제, 무역, 원주민, 민주주의 발전, 보건, 음악, 예술, 사회, 문화 등 호주와 관련된 자료 • 호주와 뉴질랜드의 관계, 남극 관련된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발전사 및 호주와 관련된 자료 • 한국의 전략 및 지역적 이슈와 관련된 자료 •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관련 자료 • 인문, 사회, 예술, 호주와 관련된 연구력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참고정보원을 중점 수집 • 온라인 형태 자료

NLA의 외국자료 수집과 목록 업무는 '해외자료개발·메타데이터관리부(Overseas Collections and Metadata Management)'에서 전담하며, 장서개발정책에 기초하여 작성된 수집자료 프로파일 에 근거하여 상업적 벤더를 통하여 외국자료를 구입한다. 그 외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의 출판물은 주로 수증의 방법으로 수집하고 있다. 이렇게 입수한 NLA의 외국자료는 지역특화자료실에서 서비스하는데, 한국학 자료를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자료의 수집 현황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NLA의 외국자료(아시아 태평양 지역) 수집 현황

구분	주요 특징
 <p>Asian collection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LA 아시아 컬렉션은 19세기 이후 현대 아시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체계적인 수집은 1950년대부터 시작했으며, 아시아 지역 국가의 역사, 정치, 현재의 이슈, 사회, 문화 등에 관한 주제를 선별적으로 수집하고 있음 • 도서, 학술지, 정부간행물, 잡지, 신문, 원문DB, 전자책, 지도류, 웹아카이브, 단명자료 등을 수집하고 있음 • 12세기 『대반야바라밀다경(大般若波羅蜜多經)』, 런던선교협회의 19세기 중국활동에 관한 기록인 『London Missionary Society collection』, 19세기 일본의 목판본인 『Japanese woodblock print collection』 등이 대표 소장품으로 알려져 있음 • 한국, 일본, 중국, 동티모르, 버마, 캄보디아 등 국가별 컬렉션을 운영하고 있음
 <p>Korean collec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과학, 인문과학, 특히 경제, 통계, 정치와 정부, 정부간행물, 외교관계 문서와 법률, 한국사, 전기와 고고학, 언어와 문학, 철학, 종교와 미술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호주에서 가장 대규모 한국학자료를 수집하고 있음 • 도서, 학술지, 신문, DVD, 단명자료 위주로 소장하고 있음 • 1950년대 이후 자료는 주로 남한에서 입수한 자료이며, 최근 북한 관련 자료의 입수에 중점을 두고 있음 • 현대 남한 관련 자료는 온라인자료(전자책이나 온라인 DB)를 입수하는 것으로 정책적 방향을 전환했으며, KSDC(Korean Social-Science Data Centre)를 구독하고 있음 • 특히 1984년 NLA가 Jessie McLaren으로부터 수증받은 『McLaren Human Collection』은 1490년대의 한국 귀중본도 포함되어 있음. 선교활동으로 한국에 1911년부터 30년간 거주하였으며, 체류기간동안 수집한 한국, 일본, 중국 관련 귀중서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 • 2014년부터 정기적으로 북한 정부기관 웹사이트를 아카이빙하고 있음

구분	주요 특징
<p>Pacific collec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평양 지역,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등 호주와 역사적으로 오랜 관련성이 있는 지역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음 • 인쇄자료: 태평양 지역의 초기 기록물부터 현대 출판물에 이르기까지 수천 권의 책, 신문 및 저널을 수집하고 있음 • 필사본: 개인적 혹은 전문적인 태평양 및 파푸아뉴기니 지역과 관련된 많은 호주인들의 필사원고, Pacific Manuscripts Bureau(PMB)와 Australian Joint Copying Project(AJCP)시리즈의 마이크로필름 자료 소장함 • 사진: 초기부터 현재까지 그림 및 사진 등을 수집, 디지털화 작업도 수행 중 • 아카이브: NLA가 선별적으로 웹사이트를 선별하여 아카이빙하고 있음

4. 일본국립국회도서관(國立國會圖書館, National Diet Library, Japan)

NDL의 장서개발정책에 해당하는 「자료수집지침」은 1993년 관장결정 제2호로 제정되었으며 그 후에도 수차례 개정되었다. 2017년 3월 개정된 「자료수집지침」은 총 9개(1. 수집목적과 기본방침, 2. 국내자료 및 전자정보, 3. 외국자료 및 전자정보, 4. 입법관계자료 등, 5. 복제에 의한 장서의 유지, 6. 계약에 근거한 이용제한, 7. 도서관 등과의 협력, 8. 자료수집방침서 작성, 9. 지침개정)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자료는 일본의 문화재 및 정보자원을 폭넓게 수집하며, 외국자료와 국내·외 전자정보는 선택적으로 수집함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료수집지침」에 근거하여 수집하는 자료의 기본방향, 수집범위, 우선순위 등을 기술한 「자료수집방침서」¹⁰⁾가 실질적인 업무지침으로 활용한다. 이는 총 5개(서문, 수집의 기본방침, 국내자료 및 전자정보, 외국자료 및 전자정보, 입법관계자료) 영역으로 구성되며 각 자료의 주제 및 유형별로 수집 대상과 수집 수준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외국자료는 자료유형별(도서, 잡지, 신문, 온라인자료, 입법자료, 컬렉션)로 대부분 한 다음 도서와 연속간행물은 학문주제별(사회과학, 인문과학, 과학기술)로 각각 NDC의 강목을 기준으로 조합하여 구체적인 수집지침을 기술하고 있다. 컨스펙터를 준용한 0~5단계의 수집 수준¹¹⁾을 제시하고 있는데, 외국자료의 경우는 자료유형과 학문주제별로 상이하지만 주로 선택적 수집(2단계) 혹은 적극적 수집(3단계)을 제안하고 있다.

10) Available: <https://www.ndl.go.jp/jp/collect/collection/pdf/housin.pdf>

11) 컨스펙터를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수집 수준을 자료별로 정하고 있음. ▪ 수집제외(0): 수집하지 않으며, 기증도 받지 않음. ▪ 엄선 수집(1): 사료 가치, NDL 장서 구성상의 필요성, 타관 소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엄선하여 수집·수증 받음. ▪ 선택적 수집(2): 평가·선택하여 수집함(간행년도와 예산, 입수 방법에 의한 제약을 가하는 경우가 있음). ▪ 적극적 수집(3): 다양한 출판정보를 모아 해당 자료군에서 가치있는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수집함. ▪ 포괄적 수집(4): 최대한 수집함. ▪ 망라적 수집(5): 해당 자료의 전부를 수집함. 또한 수집에 있어서 국내 도서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수집수준 항목에서 따로 표시하여 구분함.

〈표 6〉 NDL의 자료수집 방법별 연차증가량과 누적 소장책수(제1종 자료, 2018년말)

자료유형	수집방식	연간 자료수집 현황(2018년)							NLD 소장수 (2018년말)	
		구 입		납입 (24조, 24조의 2)	납 입(25조)		기 증			국제 교환
		국 내	외 국		유 상	무 상	국 내	외 국		
도서 (책)	화한서(和漢書)	18,552	4,301	31,894	80,583	30,508	8,086	1,605	750	8,513,039
	양 서	88	19,387	841	411	352	66	1,383	2,078	2,841,255
	소 계	18,552	4,301	31,894	80,583	30,508	8,152	2,988	2,828	11,354,294
축차 간행물 (점)	국내간행잡지	15,655	0	72,737	26,324	142,164	2,485	3	0	8,461,286
	외국간행잡지	0	27,034	0	0	1	0	5,464	8,715	3,889,292
	국내간행신문	124	0	5,515	9,970	120,368	40	0	0	4,137,744
	외국간행신문	0	56,598	0	0	0	0	2,117	3,594	2,056,709
	소 계	15,779	83,632	78,252	36,294	262,533	2,525	7,584	12,309	18,545,031
비도서 자료 (점)	마이크로자료	224	162	0	743	631	74	8	9,152	9,137,645
	영상자료	1	0	275	10,247	843	223	0	0	365,598
	녹음자료	2	0	95	14,669	1,200	83	0	0	762,661
	기계가독자료	41	89	1,917	3,065	1,267	70	6	30	157,533
	지도자료	1	896	1,835	2,654	19	43	402	0	580,608
	악보자료	0	0	0	787	1	0	0	0	20,285
	카드식자료(매)	0	0	5	23	6	1	0	0	40,672
	정지화상자료(매)	5	0	24	82	26	1,336	1	1	161,549
	박사논문(점)	0	0	0	0	0	1,334	0	0	596,153
	문서류	276	0	0	0	0	13,338	0	0	409,666
	접자·대활자자료 (책)	0	1	295	897	299	1	0	0	43,525
	기 타	0	0	0	0	0	0	0		2,011,796
	계	34,969	108,468	115,433	150,455	297,685	27,190	10,989	24,320	44,187,016

NDL은 동경본관의 수집서지부에서 자국에서 발간된 모든 출판물을 수집하며, 관서관의 아시아정보과는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자료를 주로 수집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자료수집 방법별 연차증가량을 살펴보면 〈표 6〉에 정리한 바와 같이 납본(73%), 구입(19%), 수증(5%), 국제교환(3%)의 순으로 많다. 전체 구입 자료 가운데 외국 자료 비율은 75.6%(108,468권/점)이며, 2018년말 기준 전체 도서의 약 25%는 외국자료로 구성되어 있다(國立國會圖書館, 2019). 또한 도서 자료의 언어별 분포(서지레코드를 기준)를 살펴보면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어 이외의 외국어로 기술된 자료가 19.5%에 이른다. 특히 관서관은 2018년 작성한 신규 서지데이터의 약 95%가 외국자료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관서관의 아시아정보실은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관련 자료와 정보를 집중 수집·제공하고 있다. 또한 'AsiaLinks'를 비롯한 정보발신형 서비스, 국내·외 아시아정보 취급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표 7〉 NDL 도서 및 연속간행물의 언어별 분포(2018년말 서지데이터 작성 기준)

구분	2018년 연간 신규 서지레코드				NLD 전체 서지레코드수 (2018년말)		
	동경본관	관서관	국제어린이 도서관	소계			
도서	일본어	126,423	954	-	127,377	5,018,667	
	외국어	중국어·한국어	186	9,096	573		9,855
		아시아 이외 외국어	12,075	8,233	-		20,308
		아시아 제언어	-	737	125		862
	소계	138,684	19,020	698	158,402		6,932,870
잡지	일본어	1,917	-	-	1,917	-	
	외국어	중국어·한국어	-	50	3	53	-
		아시아 이외 외국어	92	35	-	127	-
		아시아 제언어	-	5	-	5	-
	소계	2,009	85	3	2,097	-	
신문	일본어	87	-	-	87	-	
	외국어	중국어·한국어	-	4	-	4	-
		아시아 이외 외국어	1	-	-	1	-
		아시아 제언어	-	-	-	0	-
	소계	2,096	89	3	2,188	-	

5. 중국국가도서관(National Library of China)

NLC의 장서개발정책 기본원칙¹²⁾은 모든 중국 출판물을 완전하게 수집하며 외국 출판물에 대해서는 질적 우수성을 확보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원칙을 통하여 NLC는 중국 출판물과 전 세계에서 출판되는 중국과 중국인에 관한 모든 출판물의 최대 수집기관을 지향하며, 중국 고서, 동양학, 미술사, 고고학, 둔황 문서, 자연사, 족보, 지방지, 연감 등의 전통자료 수집에도 주력하고 있다. 특히, 외국자료는 4단계 수집수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1단계인 포괄적수집 대상은 저명한 공산주의 지도자의 저작 및 관련 자료,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과학분야 주요 저작, 법률 자료 등에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2단계 핵심수집은 중요 학술서적 즉, 해외 중국어 간행물 및 중국 서적의 외국 번역, 해외 중국어 작품, 도서관·정보학 주제 단행본, 주변국 관련 서적 등이 해당되며, 3단계 선별적수집은 일부교과서나 문학작품을, 4단계는 수집제의 대상을 명시하고 있다.

NLC의 외국자료 관련 업무는 '외국자료 수집·편목부'가 전담하고 있으며, 서양서 수서, 서양서 편목, 러시아 단행본 수서 및 편목, 동양언어권 자료 수서 및 편목, 서양언어·신문·정기간행물 수서 및 편목, 자료교환팀,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간행물팀으로 구분된다. 또한 언어별(영어, 일어, 러시아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한국어, 이탈리아어, 베트남어, 아랍어, 몽골어, 힌디어 등) 전담 사서가 배속되어 수서와 편목업무를 수행하고 있다.¹³⁾

12) Available: <http://www.nlc.cn>

13) Available: <http://www.nlc.cn/newen/au/org>

NLC는 1920년대부터 국제기구와 정부간행물을 비롯한 외국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해 왔으며 <표 8>에 집계한 바와 같이 총장서의 약 40%가 외국자료이다. 외국자료의 시대별 수집정책을 살펴 보면 1949~1980년대까지는 과학·기술 주제가 약 80%를 차지할 만큼 집중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인문·사회과학 주제 자료의 수집에 치중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 분야 인쇄형 외국학술지 구독은 대폭 줄이고 데이터베이스 구독으로 대체하고 국립과학기술도서관(NSTL)과 기타 도서관 컨소시엄을 통하여 인쇄형 학술지의 중복 구독을 방지하고 있다(Gu, 2011).

<표 8> NLC의 자료유형별 소장 현황(2019.12)

구분	언어	세구분	소장권수(권/점)
도서	중국어	일반도서(민국시대 지장본 포함)	10,485,419
		일반도서(민국시대 선장본 포함)	1,677,854
		일반도서(타이완, 홍콩, 마카오, 해외)	387,210
	외국어	서양언어(영어, 불어, 독어, 기타)	2,388,275
		러시아(슬라브어 포함)	683,911
		일본어 및 동양언어	1,235,897
소계			16,858,566
정기간행물	중국어	중국어 정기간행물	8,703,666
	외국어	외국어 정기간행물	7,121,293
	소계		15,824,959
신문	중국어	중국어 신문	193,441
	외국어	외국어 신문	102,238
	소계		295,679
특별장서	회귀서·선본고서(including Ancient Rare Books, New Rare Books, Rare Books in Foreign Languages)		399,557
	지도(중국어 및 외국어 포함)		184,741
	사진자료(Photographs, New Year Pictures, Engineering Drawings, and others)		172,858
	탁본 자료 등		330,832
	필사본, 서간문		110,919
	소수민족 관련 문서, 자료		242,300
	둔황유서, 투르판 문서, 자료		29,966
	족보, 지방지자료		140,723
	기타 특수 컬렉션(호화장정판 등)		12,627
	학위논문 및 기타 중국자료		2,801,001
	도서관학 관련 자료		45,841
	국제기구 및 정부간행물 자료		635,014
소계			5,106,379
마이크로폼	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피시		1,692,794
시청각자료	Sound Recordings, Video Recordings, CD, Microgroove Records, MP3, LD, VCD, VHD, DVD		470,202
전자자료	CD-ROM 외		115,644
합계			40,364,223

한편, NLC는 『중국기념(中國記念) 프로젝트(Chinese Memory)』를 통하여 중국 고대문헌의 수집과 고서 및 희귀서의 온라인 전시, 해외 소장 중국고서의 디지털 변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¹⁴⁾ 프린스턴대학도서관, 컬럼비아대학도서관, 중국과학아카데미도서관 및 베이징대학교도서관 등이 참여한 이 프로젝트는 중국문헌의 발굴과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작업을 주로 진행해 왔다. 현재는 북미 소재 중국 고전자료에 대한 상당 부분의 접근점이 확보된 상황이다. 또한 2007년부터 『중국고서보존프로젝트(Ancient Books Preservation Project)』의 일환으로 프랑스국립도서관에 소장된 둔황문서를 고해상도 디지털파일로 반환받은 바 있으며,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디지털협력프로젝트를 강화하여 세계 각국에 흩어진 중국 고대 자료의 발굴 및 디지털화 작업을 거쳐 대중에게 공개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¹⁵⁾

6. 요약 및 시사점

이상으로 주요 국가도서관의 외국자료 개발 현황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첫째, 외국자료 수집을 위한 조직과 전문 인력이 구성되어 있다. 둘째, 외국자료 수집정책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특화분야 혹은 중점수집분야에 대한 장서개발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연구지원이 가능

<표 9> 주요 국가도서관 외국자료 개발 현황 분석

구분	LC(미국)	BL(영국)	NLA(호주)	NDL(일본)	NLC(중국)
조직	도서관장서·서비스관리국 6개의 해외 사무소	장서·큐레이션부	외국자료수집·메타데이터관리부 해외지역사무소	수집서지부 외국자료과 아시아정보과(관서관)	외국자료수서·편목부
외국자료 장서개발정책	장서개발정책 → Area Studies(지역연구): 호주, 영국, 캐나다, 중국, 유럽, 일본, 한국을 비롯한 14개 국가/지역별 장서개발 세부지침을 제시	장서개발정책 → 특수장서개발지침에서 9개 국가·지역별 세부정책 (영국·아일랜드, 아시아·아프리카,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스칸디나비아, 동유럽) 제시	장서개발정책 → 5. 선별수집(해외출판물): 아시아·태평양 지역, 그 외 지역	자료수집지침 → (3. 외국자료 및 전자정보). 자료수집방침서 → (4. 외국자료 및 전자정보)	장서개발정책 → 외국자료수집정책
컨셉터스 준용	●	×	▲ 3단계(포괄적 수집, 대표자료 수집, 선택적 수집)	● 5단계(외국자료의 경우는 선택적 수집(2/5)와 적극적 수집(3/5) 수준이 대부분)	▲ 4단계(1단계 포괄적 수집, 2단계 핵심수집, 3단계 선별적 수집, 4단계 수집제외)
중점수집 주제	사회과학, 법학, 역사	과학, 기술, 의학	영어·불어 우선수집	사회과학, 기술과학	인문·사회과학
한국학 자료 수집 및 특화자료	- 인터내셔널 컬렉션 - Korean Studies	Korean Collection	- 특화장서열람실(Special Collections Reading Room)에서 국가/언어별 자료 서비스 - Korean Collection	- 아시아 관련 자료(중국 80%, 한국 10%, 기타 10%) - 관서관 아시아정보실	해외소재 중국고서의 수집과 디지털화 주력

14) Available: <http://www.nlc.cn/newen/cm/>

15) Available: http://www.nlc.cn/newen/au/int/index_8.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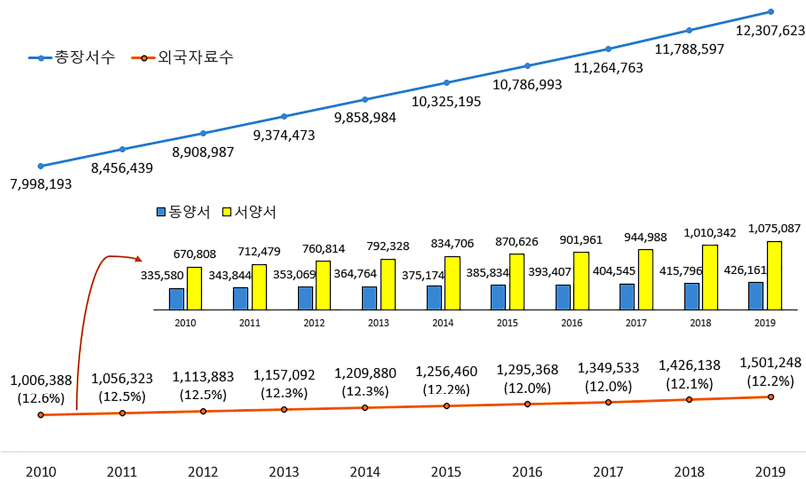
한 장서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양적 규모와 질적 수준 강화에 힘쓰고 있다. 영국을 제외하고는 컨스펙터를 준용하고 있으며, 자료의 세부주제 및 유형별로 수집 단계를 명시하고 있다. 셋째, 자국민과 자국에 관계된 고대부터 현재까지의 망라적 수준의 해외소재 자료수집에 집중하고 있고, 실물 수집이 어려운 경우는 매체변환을 통한 입수에도 주력하고 있다.

주요 국가도서관의 외국자료 개발 현황 분석에서 도출된 특징 중에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 항목이나 내용은 최대한 수용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외국자료개발지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추가적으로 이들 선진국 국가도서관이 수집하고 있는 아시아 특히, 한국 관련 자료(북한자료 포함)의 규모가 상당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Ⅲ. 국립중앙도서관 외국자료 개발 방향성

1. 외국자료 수집 현황

2019년 12월 기준 국립중앙도서관의 총장서수는 12,307,623책/점¹⁶⁾이며, 이 가운데 외국자료는 1,501,248책/점(12.2%)이다. 최근 10년간(2010~2019) 외국자료 수집비율¹⁷⁾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2% 안팎으로 이는 앞에서 분석한 선진국 국가도서관의 수집 규모와 비교하면



<그림 2> 국립중앙도서관 총장서 대비 외국자료 소장 비율 추이(2010~2019)

16)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를 포함한 수치임.
 17) 국립중앙도서관연보(2010~2019년)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산출함.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수집한 외국자료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서 78%, 연속간행물 17%, 비도서자료 5% 순이며, 구입의 방법을 통한 수집은 도서의 경우 약 49%, 연속간행물은 약 65%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9년 한 해 동안 등록된 자료(총 519,026책/점)는 국내서(71.3%), 비도서(14.2%), 서양서(8.7%), 일본서(2.6%), 고문헌(2.3%), 중국서(0.9%) 순이다. 외국자료의 경우 발행국가별로 수집규모의 격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2. 외국자료 개발 방향성

가. 장서개발 대상과 범주의 구체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지침(2018)」은 제3장 외국자료 개발지침에서 3.1 적용대상과 기본지침, 3.2 일반자료, 3.3 온라인자료, 3.4 특수범주자료, 3.5 어린이·청소년자료, 3.6 장애인용 대체자료, 3.7 정책자료 순으로 기술하고 있다. 주제별 집서수준은 따로 제시하고 있는데, <표 10>에 제시한 바와 같이 장기적 관점에서 총류와 철학 주제만 3단계(학습교육지원수준)이며 그 외 주제는 4단계(연구수준)로 정하고 있다. 각 주류의 하위주제(강목 이하)에 대한 집서수준과 세부지침은 주제별로 상세하게 정한다고 기술하고 있지만, 외국자료의 경우는 주제별 집서수준과 장서개발 세부지침을 상세하게 기술하지 않고 있다.

<표 10>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지침(2018)에 따른 주제별 및 매체별 집서수준*

주제	국내자료		외국자료	
	일반자료	온라인자료	일반자료	온라인자료
총 류	5	5	3	3
종 교	5	5	4	3
철 학	5	5	3	3
사회과학	5	5	4	3
자연과학	5	5	4	3
기술과학	5	5	4	3
예 술	5	5	4	3
언 어	5	5	4	3
문 학	5	5	4	3
역 사	5	5	4	3

* 1: 최소수준, 2: 기본정보수준, 3: 학습교육지원수준, 4: 연구수준, 5: 포괄적수준

우선, 외국자료에 대해 대부분의 주제를 4단계(연구수준)로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주류 주제에 적용하는 4단계(연구수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한 지향점이다. 다만,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이 외국자료의 수집에 투입하는 예산과 인력¹⁸⁾의

규모, 외국자료의 비율(약 12%) 등을 고려할 때,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중점수집할 하위 주제(강목 이하)군을 선별하여 양적 규모와 질적 수준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 외국자료 개발의 효율성과 성과의 가시화를 위하여 현재 장서개발지침의 기본방향은 준수하되, 현재 외국자료의 수집수준을 평가하고 하위주제별 수집의지와 개발하고자 하는 목표수준을 제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현재 장서량과 장서 증가율을 바탕으로 현재장서수준과 수집의지수준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여 목표장서수준을 결정하면 된다. 이때 목표장서수준은 이해관계자(이용자, 직원, 전문가 등) 요구분석 결과 등을 추가로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다.

나. 중점수집자료의 체계화

현재 장서개발지침은 외국자료의 수집대상을 일반자료(일반도서, 참고도서, 연속간행물, 회색문헌, 지도자료, 온라인자료)와 특수범주자료(고문헌, 매체변환자료, 다문화자료)로만 구분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외국자료의 수집력을 비교적 빠르게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표 11>에 정리한 바와 같이 중점수집자료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핵심자료와 특성화자료로 구분하여 체계화하되, 전자는 중장기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외국자료 중 우선순위를 두고 수집할 주제군으로, 후자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상대적으로 특화된 고유의 장서로 정의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 중점수집자료(핵심자료 + 특성화자료) 수집 방안

구분		세부내용
핵심 자료	인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장서 확충 필요시 출판년 제한 없이 구입 연구수준(박사과정 및 독립연구)에 필요한 자료 수집 철학: 동양철학 중점 수집 종교: 한국 관련 종교자료 언어: 언어 및 언어학 자료, 사전자료, 한자권 언어자료, 한국어 관련 언어자료 문학: 한국문학, 중국문학, 일본문학 및 기타 아시아문학, 영미문학, 독일문학, 프랑스문학, 스페인 및 포르투갈문학, 이탈리아문학, 기타 계문학의 자료를 포괄 수집. 문학이론, 문장법과 수사학, 문학사와 평론, 한국 문학작품 번역, 비평, 연구 자료 역사: 세계 각국의 역사, 지리와 전기를 포괄하며, 특히 아시아 지역(동북아 및 아세안)의 역사자료를 중점 수집
	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장서 확충 필요시 출판년 제한 없이 구입 연구수준(박사과정 및 독립연구)에 필요한 자료 수집 예술 전 주제분야를 포괄 수집 (오락 목적의 자료 제외) 문화예술 관련 전문서 및 해외 문화예술기관 발간 자료 주제분야: 건축, 조각 및 조형미술, 공예·장식미술, 서예, 회화·도화·디자인, 사진예술, 음악, 예술 및 매체예술, 스포츠

18)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조직도 상에 외국자료 수집은 자료수집과에서 담당하는데, 외국자료 구입 업무에 3명, 해외한국 관련 자료 등록 업무 1명을 분장하고 있음. 또한 2019년 기준 자료(인쇄)구입비는 59억8천만원이며 이 가운데 약 10억원이 외국자료 구입에 투입되었음(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2019)

구분	세부내용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분야: 통계자료, 경제학, 사회학, 사회문제, 행정학, 교육학, 민속학, 국방·군사학 • 주요 국가의 국가기관 및 정책기관, 각종 국제기구, 주요 대학, 학술출판사 등에서 발간한 정책자료를 중심으로 수집 • 국제질서·정책 관련 자료, 정부정책 추진 분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의성 자료는 당해 관심 키워드로 발굴 - 정책자료는 기관, 국제기구, 대학, 학술출판사 발간한 통계, 경제, 외교, 사회문제, 행정, 국방·군사 자료를 수집 	
특성화 자료	한국 관련 (북한포함)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에 소재한 한국 자료 •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한국 관련 집필 자료 • 해외에서 출판된 한국인 집필 자료 • 한국의 영토·영해와 관련된 지도, 세계지도집, 고지도 자료 • 한국인의 외국 박사학위논문 자료 • 해외동포 및 이민사 관련 자료 • 북한의 권력구조, 정치체제, 경제사정, 사회문화, 지리 등과 관련된 자료
	동북아·신남방·신북방 전략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에서 중국 정부의 동북공정자료, 일본 정부의 독도 관련 자료, 동북아 국가의 전략적 자료는 적극 수집 • 해외에서 일본, 중국 등 동북아 지역의 발간자료는 인문, 사회, 과학 등 모든 주제분야를 대상으로 수집하며, 특히 한국의 정치, 사회, 문화, 역사 등과 관련성 있는 정책자료를 중점 수집 • 정부의 신남방·신북방 정책과 관련된 전략적 정책자료(아세안과 인도 등 신남방 국가들과 러시아, 몽골 등 유라시아 협력 강화 대상국인 신북방 국가들과의 전략적 관계 강화를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 주제의 정책 자료)
	다문화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을 위한 자국의 사회, 문화, 경제적 지식정보 제공 및 다문화인들의 민족성과 삶, 풍습, 가치관 등이 반영된 도서(역사, 문화, 문학, 언어 등), 사회문화적·경제적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신문, 대중잡지, DVD(영화, 드라마 등) 등

첫째, 이미 대학도서관·전문도서관 및 전문연구원에서 기관 특성을 반영한 주제의 외국자료를 다수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수집을 피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고유영역을 확보¹⁹⁾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평가 결과, 강점으로 분석되는 인문·예술 분야를 핵심 주제군으로 강화할 수 있다.

둘째, 문화외교, 감염병, 4차 산업, 그린 뉴딜, 아세안 등 정부의 정책기조와 국내·외 동태를 살펴 시의성 있게 적용하여야 할 정책 주제를 선정하고 서비스한다.

셋째, 해외소장 한국 관련 자료수집이 시급하다. 한국 관련 자료가 더 이상 망실되지 않고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국가도서관 차원에서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고문헌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한국 관련 자료의 완전한 수집이 요구된다.

앞서 주요 선진국 국가도서관이 외국자료에 대한 중점수집 영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장서개발지침에서 수집대상 국가별 혹은 주제별 장서개발지침을 구체화한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19) 부언하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나 외국학술지지원센터(FRIC) 등을 통해 제공되는 해외 학위·학술논문 및 전자책 열람서비스, 국외 자료에 대한 국가기록원의 해외기록물 수집사업 등 유사 사업과 차별화할 필요성이 있다.

다. 이용자 요구 기반 자료수집 강화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위원회규정」 제6조에 의거하여 주제별 학술연구 자료와 특화자료의 구입을 위해 대학교수 및 국책연구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국자료추천위원회’를 운영²⁰⁾하고 있다. 2019년에는 370명의 추천위원으로부터 47회에 걸쳐 57,140책의 추천목록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11,605책(점)을 선별하여 구입·등록하였다(국립중앙도서관, 2019, 52). 외국도서 구입은 주로 ‘외국도서 구입 사업’을 통한 업체 선정과 ‘외국자료추천위원회 추천목록’을 중심으로 한국관련 자료나 시의성자료, 주제별 학술자료, 일반자료를 구입해왔다. 이용자 비치희망도서 신청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자료 수집을 기본방침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현재 홈페이지의 안내된 바와 같이 매년 10월말 신청을 마감하고 이후 신청자료는 다음 해에 구입이 가능한 점은 ‘외국도서 구입사업’으로 일괄구입하는 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다른 방안을 강구하기에도 인력과 예산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외국자료 가운데 일반자료 구입은 ‘가치’에서 ‘요구’ 기반으로 수집정책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 확충이 무엇보다 절실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결정자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자료의 주요 이용자 집단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연구자의 수요를 반영하여 수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범위를 넓히면 대학생이나 대학원생까지 확대 가능하다.

둘째, 외국자료 수집과 제공 방법에 대한 이해관계자(이용자, 직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근거로 국립중앙도서관 외국자료 개발정책을 마련하고 서비스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외국자료 이용행태 분석(이용 및 비이용 요인, 이용빈도와 중요도, 주제·언어 및 매체별 선호도, 접근성 등)을 통하여 외국자료개발지침에 적용해야 한다.

셋째, 연구정보서비스 개선을 통한 외국자료 수요 창출이 필요하다. 관외대출이 제한된 국내자료와는 별도로 외국자료에 대한 이용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표 1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수집과 봉사료 대별하여 외국자료 이용자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도서관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과 유사하게 연구자 등록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상호대차를 통해 관외 대출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연구정보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연구자 등록규정을 다소 완화하고, 외국자료의 이용 수요를 창출하는 일이 외국자료 수집의 근거를 마련하는 길이 될 수 있다.

20) 외국자료추천위원회제도와 관련하여 담당자와 면담 결과, 각 주제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외국자료의 추천을 받고 있으나 외국자료추천위원회에 대한 보상 부분이 극히 미비하고 분야별 세부 주제의 추천에 한계가 있다고 함. 또한 한국 관련 외국발간 자료의 망라적 수집을 위한 다양한 입수 경로와 방법의 강구가 필요하고, 정상 절차로 입수가 어려운 품질·절판된 자료를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음(2020년 10월 13일 「국립중앙도서관 외국자료 장서개발정책 연구」 중간보고에서 자료수집과 외국자료 구입 담당자와의 질의응답 내용을 발췌하여 기술함)

〈표 12〉 외국자료 이용자 서비스 강화 방안

구분		내용
수집	희망도서 신청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정보실 등록 연구자에게 필요한 외국자료를 신청 받아 수서에 반영하는 방안 • 매월 희망도서를 신청 받고 담당자 심의 후 수서 진행 • 희망도서의 경우 수서 즉시 대출서비스 제공
	자료추천위원 대출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자료 추천위원의 추천자료를 우선 수서 이후 희망도서의 경우 수서 즉시 대출서비스 제공
봉사	기관상호대차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기관(국가정책정보협의회 참여기관,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등)에 대해 기관 상호대차 서비스 시행(외국자료의 경우 소장장서 전부를 대상으로 함)
	연구자 대출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자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연구정보실 등록 연구자를 확대하고, 연구자의 외국자료 관외 대출을 허용(외국자료 대출규정 신설 필요) • 필요시 중요, 긴급자료 신청의 경우 우편택배를 통한 대출서비스 시행

IV. 결론 및 제언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의 지식문화유산을 전승하고 국민의 지적인 삶을 풍요롭게 하며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4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가지식자원 접근·보존 기반 고도화’는 외연적 범위를 국내자료뿐 아니라 외국자료로도 확대하여 국가지식자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은 외국자료개발지침을 정비하고 다음과 같은 순차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현실적으로 외국자료의 포괄적 수집이 어려운 만큼 집중 수집할 장서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장기적으로는 해당 주제영역에 대해 연구수준 이상의 집서를 목표로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명시적인 집서수준보다 이용자에게 실제로 도움을 될 수 있는 중점수집자료를 설정하고 연구수준 이상의 장서수준을 마련해야 한다. 앞에서 제시한 핵심자료(인문, 예술, 정책자료)와 특성화자료(북한을 포함한 한국 관련 자료, 동북아·신남방·신북방 전략적 자료, 다문화자료)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서 국립중앙도서관 차원이 아닌 관련 정부부처를 설득하고 당위성을 설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둘째, 이용자 요구에 기반 한 외국자료 개발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외국자료에 대한 이용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자료 이용정책을 적극적 서비스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도서관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과 유사하게 연구자 등록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상호대차를 통해 관외 대출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다. 외국자료의 이용 수요를 창출하는 일이 외국자료 수집의 근거를 마련하는 길이 될 수 있다. 외국자료 대출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폐가제로 운영 중인 외국자료를 일부 개가제 혹은 매체변환을 통한 접근점 제공에 주력해야 한다. 대학 및 전문도서관, 기타 단위도서관에서 수집하기 어려운 자료는 국가도서관이 적극 개발·제공한다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주요 한국 관련 자료에 대한 디지털 반환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에서 수집·보존하고 있는 미 행정부 생산 공문서 컬렉션 중에서 한국 관련 기록자료를 중점 수집²¹⁾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일본, 중국, 및 유럽 국가에서 한국 고문헌 및 근현대 자료를 산발적으로 소장하고 있고 실물 반환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다양한 디지털 반환 프로젝트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전략적 접근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전략의 우선순위에 대해 신중한 평가 과정을 거쳐 연차별 실행계획 하에 추진하기를 제안한다. 또한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를 발굴하고 수집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해 가며 오랜 기간 연구조사가 필요한 특성이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자료 수집을 위해서 국립중앙도서관과 유관기관 간의 협력네트워크가 현재 수준 이상으로 잘 작동해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출처: <https://www.libsta.go.kr>
- 국립중앙도서관 (2018).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지침. 서울: 동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2019). 국립중앙도서관 연보. 서울: 동기관.
- British Library Homepage. Available: <https://www.bl.uk>
- British Library.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Available: <http://vll-minos.bl.uk/aboutus/stratpolprog/coldevpol/index.html>
- British Library. Collection Guide.
Available: <https://www.bl.uk/collection-guides?subject=EastAsia>
- British Library. History of the British Library.
Available: <http://vll-minos.bl.uk/aboutus/quickinfo/facts/history/>
- Gu, Ben (2011). Collection development in the digital age: changing roles of the National Library of China. East Asian Library Resources Group of Australia Newsletter, 58.
Available: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82008336_Collection_Development_in_the_Digital_Age_Changing_Roles_of_the_National_Library_of_China
- Library of Congress (2018). Fiscal 2018 Budget Justification. Washington, D.C.: Library of Congress.

21) 워싱턴 현지에서 디지털 이미지파일로 수집되는 이 문서들은 기록자료의 특성에 맞는 기술규칙을 적용하여 목록 DB와 원문DB를 구축,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음.

Library of Congress (2019). Fiscal 2019 Budget Justification. Washington, D.C.: Library of Congress.
Library of Congress (2020a). Fiscal 2020 Budget Justification. Washington, D.C.: Library of Congress.
Library of Congress (2020b). LC Financial Reports: Fiscal Year 2020. Washington, D.C.:
Library of Congress. Available: <https://www.loc.gov/static/portals/about/reports-and-budgets/documents/budgets/fy2021.pdf>

Library of Congress. Acquisitions. Available: <https://www.loc.gov/acq/>

Library of Congress. Introduction to Collections Policy Statements.

Available: <https://www.loc.gov/acq/devpol/cps.html>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Available: https://www.nla.gov.au/sitesdefault/files/collection_development_policy_revised_2_july.pdf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Organizational Chart.

Available: <https://www.nla.gov.au/about-us/organisational-structure>

National Library of China Homepage. Available: <http://www.nlc.cn/newen/au>

國立國會圖書館 (2017). 資料收集の指針.

출처: <https://www.ndl.go.jp/jp/collect/collection/policy.html>

國立國會圖書館 (2017). 資料收集方針書.

출처: <https://www.ndl.go.jp/jp/collect/collection/pdf/housin.pdf>

國立國會圖書館 (2019). 國立國會圖書館年報: 平成30年度. 東京: 同圖書館.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National Diet Library (2017). National Diet Library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Available: <https://www.ndl.go.jp/jp/collect/collection/pdf/housin.pdf>

National Diet Library (2017). National Diet Library Guidelines for Collecting Materials.

Available: <https://www.ndl.go.jp/jp/collect/collection/policy.html>

National Diet Library (2019). Annual Report of the National Diet Library: 2018~2019.
Tokyo: National Diet Library.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8). National Library of Korea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9). Annual Report of National Library of Korea.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National Library Statistics System. Available: www.libsta.go.kr